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주일에배 설교 음성서비스

Apple Podcasts 팟캐스트

Spotify 스포티파이

팟빵 오디오클럽



제26회 통일성취기도회

10월 17일,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 평화의 기도회

광림교회는 지난 10월 17일(목)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6개 부대에서 제26회 통일성취 기도회를 개최했다.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통일성취기도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과 오물 풍선 사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도하는 광림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1999년 처음 개최된 광림교회 통일성취기도회는 매년 전후방 각지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대를 직접 방문해 나라와 민족,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살롬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5년간 개최되지 못했던 통일성취기도회는 작년부터 재개되어 올해도 각 선교구 별로 육군 6사단(2, 10선교구), 12사단(5, 6선교구), 25사

단(8, 9선교구)과 공군 19전투비행단(1, 3선교구), 해군 1함대(4, 7선교구), 해병 2사단(남교회, 북교회, 동탄광림교회) 등 6개 부대 및 광림교회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25사단에서 열린 통일성취기도회의 기도를 맡은 박기연 장로는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인애와 자비의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25사단을 방문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여호수아 7장 2~13절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

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통일의 주역이 되기를 선포했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을 축복했다.



예배의 특송을 맡은 25사단 기독 장병들과 성도들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곡으로 분단된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통일을 염원했고,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통일성취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

적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라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다시금 상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25사단장 한기성 소장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영적 사명이라 생각하며, 이런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앞장서는 부대 장병들에게도 큰 영적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25사단을 방문하여 통일성취기도회를 개최한 광림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광림교회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의 정신으로 불철주야 조국 수호에 앞장서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며 부대 발전 기금과 기도회를 통해 모아진 헌금을 군교회에 전달했다.

황지수 목사(문화홍보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복된 걸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5)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양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전쟁 가운데 전쟁의 상황과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 곧 전령이 마을에 도착하여 높은 망루나 성문에 올라가 구체적인 전투 상황과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유양겔리온이란 승리의 소식이자 해방의 소식이며 더불어 감격의 소식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이겨 승리했다는 것,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진노의 자녀이자 어두움의 자녀였던 존재가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이기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축제의 종교'요, '환희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입니다. 구원의 증거로서 바른 인격과 더불어 성숙한 인격, 곧 내면적 인격의 성숙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합쳐질 때, 비로소 참된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온 인류를 제자로 삼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걸음이 복된 자의 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걸음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먼저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넘



로마서 10:11-15

11.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	13.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15.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	---	--------------------------------	--	---

쳐나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리의 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서 주무신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습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이로 인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새로워지고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된 속성이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걸음이 복된 걸음입니다.

둘째,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

면 그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일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사는 것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희생할 동기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희생할 정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요, 희생을 통한 사명 즉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열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고, 로마가 황제숭배 사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시리아로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로 핍박을 피하여 난민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진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환경과 여건은 난민과 같이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러기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메는 목자의 심정,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된 걸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걸음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내 의로움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복된 걸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기쁨과 감격이 나의 안에 채워집니다. 그러나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만족함이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적 변화 곧 성품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내적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외적인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며 미소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때 기쁨과 감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생수를 찾아 헤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걸음이 되어 우리 안에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부흥 앞장서는 믿음의 젊은 가정

5월 ~ 10월까지 10개 선교구 스테반 연합 모임 진행



9선교구



3선교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젊은 가정이 중심이 되어 광림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남선교회 스테반 가족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10월 13일(주일)에 3선교구(7, 8, 9교구)는 애찬관에서, 9선교구(25, 26, 27교구)는 예수와에서 연합모임을 가졌다. 10월 20일(주일)에는 5선교구(13, 14, 15교구)가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3실에서, 7선교구(19, 20, 21교구)는 애찬관에 모여 예배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스테반선교회 부흥을 위한 연합 모임은 5월부터 10월까지 10개 선교구별로 진행되었으며 40~52세 남성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비슷한 나이대의 믿음의 동역자 가

정을 만나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애찬을 나누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3선교구는 스테반 31가정이 참석하여 애찬관을 가득 메웠다. 1부 예배에서 김덕민 목사는 ‘다시 확인하는 언약을 성취하는 삶’(창 26:1~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이 살던 지역에 흉년이 들어 고통을 겪을 때도 함께 하셨다. 이삭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광림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스

테반 가정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9선교구도 스테반 31가정이 예수와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연합 모임을 열었다. 김정우 목사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라는 제목으로 스테반 가족들을 향해 “지금은 영혼 구원에 힘쓸 때이며 영적 부흥을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함께 모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이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스테반 가정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예배 후, 단체 기념사진 촬영, 풍선 매직, 가위바위보 게임, 난센스 퀴즈,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회가 이어졌고 애찬을 나누면서 친교를 이어갔다.

3선교구 연합회장 구본신 권사는 “이번 스테반 연합 모임에 많은 가정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젊은 스테반 모임이 활성화되어 광림교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선교구 연합회장 안효현 권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각 교구 스테반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스테반 가정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며 광림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스테반선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유병권 기자

본당 대성전 새롭게 단장해

최근 본당 입구 바닥 공사, 본당 조명 교체, 유리창 청소 마쳐



얼마 전 김정석 담임목사는 예배 시간에 본당 입구 대리석이 낙후돼 교체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잠시 통행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사라고 설명했다.

몇 해 전부터 본당 입구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침하가 발생해 물이 고였고, 고인 물은 지하층으로 스며들어 종종 누전의 원인이 되

도 했다. 통행의 불편함과 안전의 이유로 대리석 교체는 꼭 필요했고,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진행해 본당 입구 대리석을 교체하고 물이 고이지 않고 계단 쪽으로 흐르도록 높이를 맞춰 시공을 했다.

바닥 공사와 함께 본당 조명 공사는 조명 안정화 테스트를 가진 뒤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존 램프도 모두 LED 램프로 교

체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 나갈 것이다. 기존에는 회중석 쪽에서 강대상을 비추는 순광의 조명만이 있었는데, 십자가 바로 앞 천장 쪽에 새롭게 반역광(후사광) 조명이 설치되어 좀 더 다채로운 색감의 변화로 화면으로 예배를 볼 때 더욱 풍성하고 생동감 있는 영상미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

또 22일(화)부터는 약 일주일간 대대적인 유리창 청소도 진행했다. 목자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유리창과 일부 건물 외관 패널 및 화장암의 오염된 부분을 약품을 사용해 깨끗하게 청소했다.

이안수 장로(관재위원장)는 “공사하는 2주 동안 통행이 불편했을 텐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광림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본당 입구 바닥 공사와 조명 교체, 유리창 청소로 교회가 밝고 환해졌다. 성전을 드나드는 교인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혜선 기자

포토 뉴스



여선교회 선교바자회
10월 15일(화) 밀레니엄광장에서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건축을 위한 여선교회 선교바자회가 열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의 기쁨
정요한 집사 & 김에나 집사 부부 초청 찬양 간증 집회
10월 27일(주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청장년부 레츠고 페스티벌
총력전도주일을 맞아 10월 27일, 사회봉사관에서 3040 청장년 세대를 위한 페스티벌이 열린다.

담임목사 동정



10/16 국민일보 대담
10/21~25 2024 감리회 중남미 선교사대회
멕시코 유카탄 선교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사랑부 한가족 가을 운동회

달리고, 굴리고, 던지고... 150여 명의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함께 한 가을 운동회



자이언트 스폰 릴레이, 낙하산 가방 계주, 큰 공 굴리기 등 다양한 게임이 진행됐다. 사랑부 학생들은 3부를 중심으로 한 소망 팀과 나머지 1·2·4부 학생들로 구성된 믿음 팀으로 나뉘어 경기에 참가했다. 각 팀원들이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을 응원하며 뜨거운 함성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경품 추첨은 경기가 2~3개씩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에 진행되었다. 주방용품, 무선 이어폰, 보조 배터리 등 실용적이고 인기 있는 경품들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번호가 호명되면 참가자들은 환호하며 상품을 받고, 기쁜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모든 경기와 추첨이 끝난 후, 사랑부 축구팀 '카라하베림'과 교사·학생·학부모 연합팀 간의 축구 경기가 이어졌다. 치열한 경기는 1대 1 무승부로 마무리됐지만,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며 운동회를 마무리했다.

운동회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랑부 예배실로 돌아와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한 후 모든 참가자는 하나씩 선물을 고르고, 준비된 수건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 경품 추첨에서 아쉽게 당첨되지 못했던 학생들도 직접 고른 선물을 받으며 행사는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우형진 장로는 "가을 운동회를 통해 함께 뛰고, 응원하고, 소리치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어 친밀해지는 소중한 시간도 되었습니다.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기도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신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다빈 전도사(사랑부)

사랑부(위원장 우형진 장로) 주최 제6회 한가족 가을 운동회가 10월 20일(주일)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사랑부 예배실과 현대고등학교에서 '세 겹 줄로 함께 내딛는 발걸음'(전 4:12)을 주제로 은혜 가운데 열렸다.

평소 사랑부는 9시에 1부 예배, 11시에 예수와 호흡에서 2부 예배, 사랑부 예배실에서 3·4부 예배가 따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은 운

동회 관계로 1·2부가 연합하여 1층 예수와 호흡에서, 3·4부가 2층 사랑부 예배실에서 '세 겹 줄로 묶으신 은혜'(전 4:12)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다. 특히 이번 예배는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과 부모님 모두에게 더욱 특별한 예배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인지 평소보다 더 밝고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웃음 가득! 예배 후, 간단한 간식을 먹은 뒤 현대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했다. 선선한 가을 날씨와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운동회를 하기에 최상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운동회를 시작했다.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준비운동을 한 후, OX 퀴즈, 줄다리기, 카드 뒤집기,

총력전도의 달, 배우 최강희 간증 집회 열려

총력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10월 20일 주일 저녁, 본당 대예배실에서 배우 최강희의 간증 집회가 열렸다.

최강희는 1995년에 데뷔하여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 CBS 음악 FM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견 배우다. 독실한 신자인 어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는 빠짐없이 출석했다.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존심은 강했으며, 딸이 공부가 부족하더라도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다. 그렇지만 현실과 접하면서 늘 죄의 문제로 고민했다고 한다.

내 삶을 변화시킨 주님과 만남
"그때 제가 믿는 것은 엄마의 하나님이었고, 저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낭만을 추구하면서 죄를 짓더라도 나대로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3년 어느날, 저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덜컥 주저앉아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배우로서도 잘 나갈 때였고 특별히 부족함도 없었는데 무엇인가 목 조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새벽예배에 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의지박약인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묻힐 정도로 작게 신음하는 소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또 "그날 이후 마음에 자유를 얻게 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으며,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그맨 이성미 집사에게 전화해 '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겠다. 기도할게'라고 했으며 그 뒤로 가끔씩 문자가 와서 '강희야 기도하고 있어'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초신자일 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간증했다.

"불지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이득섭 기자



광림교회 청년부 2024년 가을학기 J.D.C.

무리에서 제자로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LFC 청년공동체



광림교회 청년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년들을 '무리'에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2024년 하반기 J.D.C.(Jesus Disciple Camp) 예수제자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기 J.D.C.에는 17명의 청년들이 신청하였으며 2024년 9월 21일 ~ 11월 9일까지 총 8주 동안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JDC는 청년부 임원으로 헌신할 예정인 청년들을 모집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훈련의 장입니다.

JDC를 듣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청년이어야 하고 광림교회에 입교하였으며, 예배와 속회, 헌금생활을 성실히 하며 청년부 LTS 구약과 신약 과목을 수강한 청년들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JDC 수강생들은 토요일 오

후 2시 30분, 나사렛성전에 모여 OneThing Worship팀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1실로 이동하여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청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12가지 필수적인 주제(죄, 회개, 영접, 중생,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장, 성경, 기도, 예배, 헌신 등)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J.D.C.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얻으며, 경건생활(매일 말씀묵상, 기도생활, 영성 서적, 성구 암송)을 통해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1월 8~9일에는 디베라 MT를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살아갔던 것처럼 합숙하며 경건의 훈련을 함께하고 교제합니다.

청년 5교구 김의호 형제는 "JDC가 벌써 5주차를 마주하게 됐는데, 그동안 제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온타임 말씀 묵상이나 기도 등의 습관을 더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쫓는 거룩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청년 7교구 이시원 자매는 "JDC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됨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성장시켜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여 나에게 주신 큰 사랑을 주변에 흘러보내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며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하는 청년들은 청년부 임원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되고, 향후 부르심에 따라 속장 혹은 사역 팀장 등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파송 받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40시간, 11월 14일(목)까지 웨슬리관 3층 고등부실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12년간 학업의 결실을 보는 수능시험은 학생들이 더 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기에 그 절실함과 부담감이 배가된다.

광림교회는 해마다 수험생들을 위한 4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5일(토) ~ 11월 13일(수)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주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7시) 웨슬리관 3층 고등부실에서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가 진행된다.

수험생을 둔 50여 명의 학부모, 조부모, 교사, 교육국 전도사와 목사가 한마음이 되어 이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중보기도로 인해 수능 기도회의 열기가 날로 뜨겁다. 광림교회의 모든 기관 목사와 선교구 목사가 돌아가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으로 기도회의 포문이 열린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통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큰 위안을 받고 있으며, 공동 기도 제목인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기도,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다.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미선 집사는 "수능 기도회에 큰 기대 없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매일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수능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수험생과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상황에 맞는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기도회에 참석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마음에 큰 안정을 찾았습니다"라고 했다.

고등부는 수험생을 위한 40일 묵상집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40'과 271명의 수험생 명단을 적은 설교 노트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고3 수험생과 기도회에 참석하는 학부모에게 배부했다.

수험생을 위한 안수 기도회는 11월 10일(주일) 오후 4시경 나사렛성전에서 있으며, 교육국과 선교구 목사가 수험생에게 직접 안수기도할 예정이다. 수능 당일인 11월 14일(목)에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 기도회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웨슬리관 3층 고등부실에서 진행된다.

정성민 목사(교육부)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외롭고 곤고한 경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경주지만 주님만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리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며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희윤 기자

목회현장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세 개의 의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집에는 의자가 셋 있다. 하나는 고독을, 둘은 우정을, 셋은 사교를 위한 것이다. 예기치 않게 손님들이 단적으로 우르르 몰려와도 의자 셋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지만, 대개는

서 있으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쓴다. 자그마한 집에 얼마나 많은 남녀가 들어설 수 있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미르북컴퍼니, 2021)

할렐루야! 경기 북부 지역과 북방 선교를 위해 시작된 광림북교회가 담임목사님의 기도와 광림의 신앙 전통 아래 어느덧 봉헌 6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림북교회는 세 개의 의자를 통해, '진리의 터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과 고요히 만나는 홀로 앉음의 의자입니다. 광림교회의 전통적인 예배와 신앙훈련 프로그램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귀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에는 찬양 위주

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찬송가를 부르며 교독문, 사도신경을 비롯한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북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 마주 앉은 우정의 의자입니다. 북교회엔 기존 광림교회 성도들 40여 세대를 중심으로, 타교회나 지역에서 전도되어 오신 성도들 130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신앙 배경이 달라서 어색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마주 앉은 시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다시 시작한 애찬관 운영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제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식사 준비와 설거지 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거리를 둔 성도들이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서로

가 관계성을 맺어가는 좋은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은, 함께 둘러앉은 사교의 의자입니다. 이제 광림북교회는 우리끼리의 교회를 넘어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카데미,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교실, 의정부 신한대학교 장학금 전달, 마약 중독자 치료 돕기를 위한 선교바자회를 열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누구에게나 열린 교회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교회에는 몽골어예배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속회와 모임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를 넘어 북한, 그리고 몽골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북교회를 통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진 목사(광림북교회)

광림남교회

'라포 One 테이블' 전도 축제



청청한 나무 잎새가 불 빨간 홍시로 물들이는 가을, 남교회는 총력전도주일을 앞두고 10월 20일 '라포 One 테이블:전도 Festival'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님을 포함한 기관장은 9월 초부터 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남녀 선교회와 교구, 그리고 청장년과 청년부와 함께 교감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 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기관장들은 솔선하여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분장을 완료하며 축제는 서막을 올렸습니다. 축제 전날 여선교회와 교구임원들은 구입한 야채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며 고기를 숙성하고, 남선교회와 청년들은 행사장 주변을 청소하며 테이블과 각종 집기를 배치하고 성도들의 안전한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전날까지 흐렸던 날씨가 청명해진 주일 아침, 목사님과 모든 준비위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화로에 불을 붙이자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선교회는 맛있는 반찬과 야채를 일사불란하게 준비하여 내어놓고, 남선교회에서는 6

개의 고기 화로에서 전쟁처럼 강한 혼연을 내뿜으며 설 새 없이 고기를 굽고, 청년들은 고구마를 씻고 자르고 포장해서 달콤한 군고구마로 만들어 따뜻한 차와 함께 후식을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시는 새가족들, 성도님들, 교회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 성가대와 많은 봉사자들 모두가 식사와 후식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에 걸쳐 700여 성도가 함께한 '라포 One Table' 전도 축제가 기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에 감사드리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유아부터 청년과 장년 그리고 새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강한 소속감 형성과 교회가 꿈꾸는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예 권사님들의 인자한 웃음과 유초등부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즐거움 속에서 소중한 행복을 느껴봅니다. 축제의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 김영덕 권사(51교구)

동탄광림교회

영혼을 되찾는 기쁨의 시간



할렐루야! 세상은 단풍놀이엔 여념이 없는 이때도, 광림의 10월은 늘 복음 전도로 몸과 마음이 분주합니다.

동탄 성전 역시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마음 등산대회, 추계산상기도회, 여선교회 바자회, 통일성취기도회까지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성도들은 각자 체험한 은혜를 나누었고, 광림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맞이하는 다니엘기도회를 시작하며 3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동탄 성전 부스를 할당받아 여선교회 바자회에 참석했는데, 수제 반찬, 물김치, 갈비, 식혜, 아나바다까지 물품의 개수로 약 500여 개의 상품들을 완판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매일같이 모여서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무치고, 포장을 하면서 잠비아 선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는 10월 6일 유치 아동부 노방전도, 20일 부서별 야외 예배, 27일 총력전도주일

에는 유치 아동부 - 달란트 잔치, 중고등부 - 떡볶이 파티로 친구를 초청하여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선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각종 머리핀, 팔찌, 헤어밴드를 전도지와 함께 포장하여, 10월을 맞아 관계성 전도 선물로 정성껏 준비하였고, 기도회 후 매일같이 거점 전도와 관계성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주일 저녁에는 영화 예배를 통해 기독교 영화인 '버스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이웃,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1월 1일에는 새가족,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청남대를 방문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3개월을 맞이하는 동탄 성전은 매주 220여 명(성인 175, 교회학교 45)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광림의 전통 아래 지역을 변화시키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력전도의 달을 통해 또 한 번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제석 목사(광림북교회)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제26회

통일성취기도회

일시
24년 10월 17일
(목) 11시

장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6개 부대



남선교회
총연합회



육군 6사단 (2, 10선교구)



육군 12사단 (5, 6선교구)



공군 19전투비행단 (1, 3선교구)



해군 1함대 (4, 7선교구)



해병 2사단(남교회, 북교회, 동탄광림교회)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52-2



사도 요한이 본 환상 ②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통로를 보았고, 성령에 의해 하늘나라로 인도되었다.

하늘나라의 중앙에 있는 크고 화려한 보좌에는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히 빛나는 분이 앉아 계셨고, 그 주위는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에워싸고 있었다.

그는 하얀 옷을 입은 스물네 명의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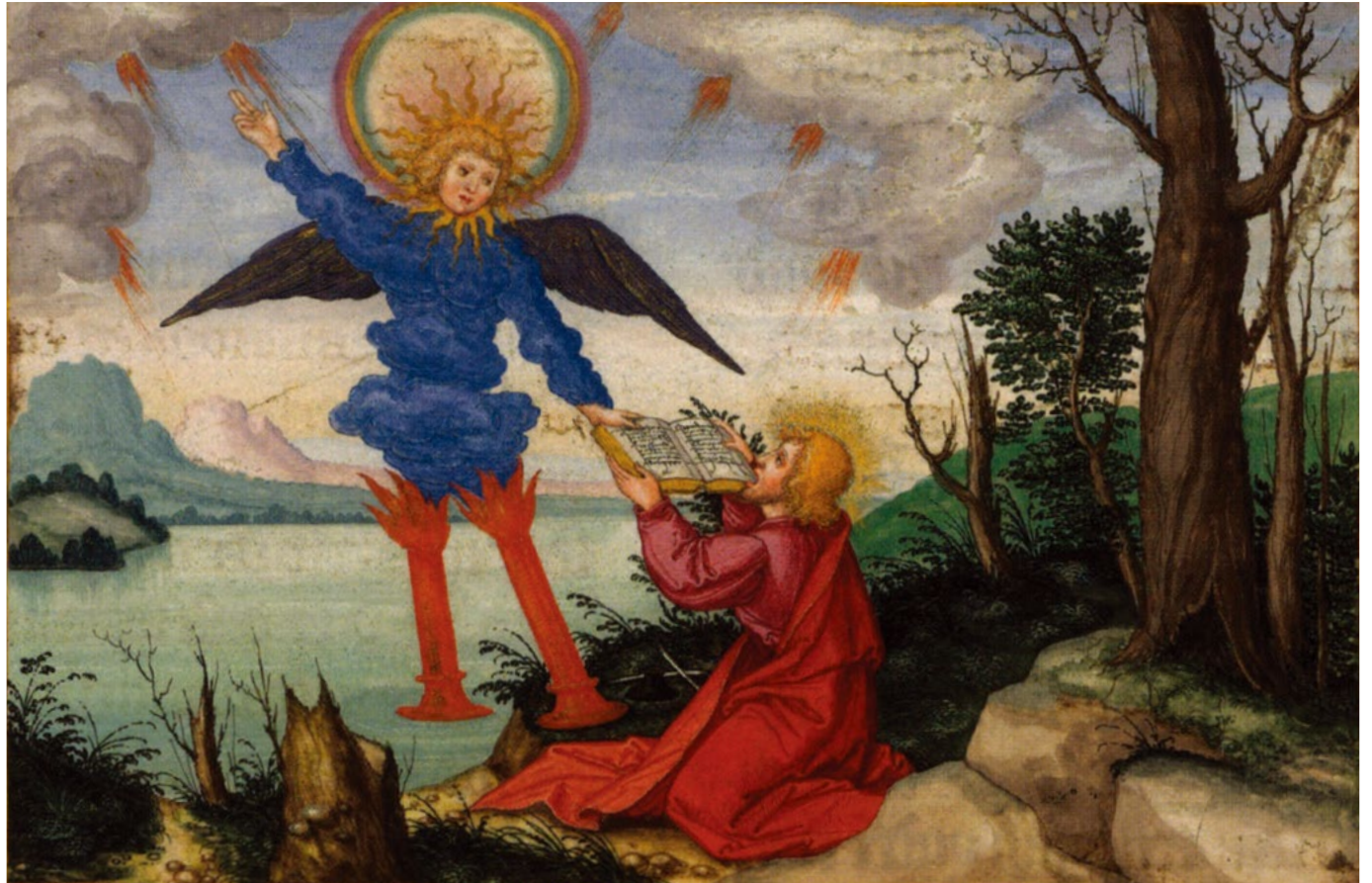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은 주의 뜻에 따라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한 어린양이 보좌와 장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분은 전에 도살되었으나 이제 우뚝 서 계신 어린양이었다. 그 어린양이 일곱 개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장차 인류가 겪게 될 무서운 고난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어린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았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있었는데 ‘생명의 책’이 펼쳐져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모두 불못에 던져졌다. 그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의 세상에 있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옛 질서는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다시 말씀하였다. “나는 알파(Alpha)와 오메가(Omega)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아무 대가도 없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고난을 이겨 낸 사람은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 타락한 자,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



▲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_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장차 일어날 계시를 받는 장면이다. 중세 필사본 그림.

배자들이 갈 곳은 불못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의 처음과 끝 글자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음을 뜻하는 말로 쓰였으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였다.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이끌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았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에 싸여 보석처럼 빛났다. 이 도시는 수정처럼 투명한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벽옥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열두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다. 열두 성문은 각기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고, 도시의 큰길은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어린양이 등불이기 때문이었다. 그 빛의 인도에 따라 모든 민족이 따라 걷고, 세상의 모든 왕이 자신들의 영광을 이 도시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을 것이기에 성문을 닫는 일이 없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다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 주었다. 수정처럼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의 가운데로 흘러갔다. 강의 양쪽 언덕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 나뭇잎은 온 세계 민족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행한 대로 보상에 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도록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가지(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분이 다시 말씀하였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牧會者,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는 사람)이면서 시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은유와 상징 이미지와 암시 등을 즐겨 사용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소아시아의 상황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도록 독려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요한계시록>이 시간상으로 ‘미래의 구원’을 보여 주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도록 소망을 주기 위함이며, 공간상으로 하늘의

보좌를 보여 준 것은 현재의 고난을 일으킨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에게 주권(主權, 인간이나 인간의 권력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한다.)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소망’을 얻어야 하고, 둘째로 ‘성도의 정체성’을 얻어야 하며, 세 번째로 ‘참음이 중요’한데, 이것은 곧 ‘현신의 재확인’이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가 52-2호로 끝났으며, 다음 호부터는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문의 : 빛의 숲 서점 (02-2056-5771)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